

안식일

핵심 구절: “여섯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0:11

선별된 성경 구절:
출애굽기 20:8-11; 로마서 14:5,6

안식일의 제도는 성경에서 창조의 기록과 그 완성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창세기 2:1-3).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의 긴 기간, 즉 "날들"에 걸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구를 준비하시는 계획을 마치셨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창세기 1:27)고 기록된 후 이 활동을 멈추셨다.

수세기 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된 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일련의 신성한 규범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법들 중 하나는 세속적인 일에서 시간을 내어, 그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기록은 이 거룩한 날의 여러 특징을 명시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성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8-10

매주 지키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십계명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 구절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축복에 대해 특별히 찬양과 감사를 드릴 시간을 가져야 함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초기 교회가 전환기에 있음을 매우 분명히 보았다. 모세 율법 아래 의무적이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에게도, 이 제약 아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다. 그의 말 중 하나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깁니다. 각 사람은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를 특별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며, 삼가는 사람도 주님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4:5,6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 에 부가된 조건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같은 의무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헌신과 찬양을 드리는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 순종, 행복,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을 포함한다. 그것은 평화, 확신, 구원, 그리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포괄한다. 하나님의 안식은 현재적이면서도 영원하다.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약속을 신뢰하고,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의 집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으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첫 부활"의 영원한
안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9-11;
요한계시록 20:6; 2:10